



신호윤 작 '츄파소파'

앞기엔 너무 예쁜 의자

무들마루, 예술의 거리에 아트벤치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아름다운 아트 벤치가 놓였다.

2014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무들마루(총감독 박성현)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인 '문화우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거리 중앙초교 담벼락 앞에 아트벤치 3개 작품을 설치했다.

이번 작품에 참여한 3명의 작가는 예술의 거리의 주변환경을 토대로 작품을 완성했다. 신호윤씨는 붉은색과 흰색의 조화가 인상적인 '츄파소파', 이재덕씨는 인간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것들', 이호동씨는 가족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자되세요' 작품을 각각 설치했다.

한편 '문화우물 완공식'은 오는 2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작가들의 작품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문화우물 발굴전'이 예술의 거리 궁다방 갤러리에서 28일까지 열린다. 문의 070-7677-92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위진수 작 '島之清香'(도지청향)

광주를 노닐다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소나무' 회원전

아트그룹 소나무가 광주미협이 위탁운영하는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초대로 18~24일 '광주를 노닐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김영일·김진수·김효삼·류재용·박영현·안진성·안태영·이기원·오창록·위진수·장용훈·정경래·조규철·조선아·조 솔·조현수·최요안·한부철씨 등이 참여해 100호 이상 대작 18점과 소품 36점 등을 동시에 선보인다.

전시 주제 '광주를 노닐다'는 광주의 문화와 역사 속에 깃들여 있는 전통과 정신이 작가들의 작업에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광주라는 환경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되돌아 본다.

한편 아트그룹 소나무는 1997년 창립 전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국내·외에서 모두 24차례의 전시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시 오프닝은 18일 오후 6시30분이다. 문의 062-222-375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 20일~11월 9일

동남아 명품 청동기 진수 만난다

청동북·항아리·장신구 등 320여점 선봬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왔다. 이는 우리나라와도 비슷하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는 '한자'와 '유교'라는 문화적 공통점이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의 명품인 베트남의 청동기시대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20일부터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에서 열린다.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을 주제로 11월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동북 12점을 비롯해 항아리, 장신구 등 모두 32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된다.

베트남 청동기 문화는 중국 원난성에서 발원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관통해 흐르는 홍강(紅江)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기원전 2000~1500년 사이 홍강 유역의 풍응우엔문화로 시작돼 동다우문화, 고문문화로 발전했다.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비롯한 시기인 기원전 500~0년 사이 동남아 지역 최고 수준의 청동기 제련 기술을 꽃피운 '동선(Dong Son)문화'가 나타난다. 이번 전시에서도 홍강 유역의 동선문화를 중심으로 베트남 청동기 문화의 흐름을 살핀다. '동선'은 유적이 발굴된

베트남 북부 지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시기 유물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청동북'으로 오늘날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물이다. 2500년 전의 청동북은 베트남은 물론 남중국과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유물로 고대시기 제련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큰 유물은 길이 1m, 무게 100kg이 넘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높이 60cm, 폭 50cm 전후의 것들이 전시된다. 청동북은 독특한 외형과 함께 표면에 정교하게 새겨진 무늬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북의 상판에는 빛나는 태양이 새겨져 있고, 주위에는 두루미와 같은 새들이 나는 형상과 밧금 무늬 등이 입혀져 있다.

청동북은 처음에는 악기로만 들어졌으며 연주할 때 나는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와 같아서 '천둥드럼'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이 밖에도 등잔, 뚜껑이 있는 청동 항아리, 밧 모양 도끼, 사람 모양 손잡이 칼, 총, 팔찌 등 베트남 청동기시대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베트남 중부 사후인문화도 소개된다. 돌널 무덤을 만들어 죽은 이를 묻어주고 해양 교역으로 얻은 보석으로



왼쪽 위부터 팔찌, 사람모양 손잡이 칼, 청동북.

장신구를 만들어 썼던 그들의 모습은 영상감 유역 돌널 고분과 유리옥 장신구들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에 앞서 19일 오후 2시30분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연구원 응웬 응우 찌이 '베트남 사후인 사람들의 장례풍습과 해양교류'를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

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이 2009~2013년 진행한 베트남 선사 문화 공동 학술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문의 061-330-7800.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베토벤 vs 비틀즈

피들스트링 정기연주회

20일 금호아트홀

피들스트링 오케스트라(단장 김해경) 제5회 정기연주회가 20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들 스트링은 지난 2008년 전남대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로 지난 2010년 정식 창단 연주회를 갖고 정기연주회와 병행 등에서 봉사 연주회를 열어왔다.



지휘자 유건우

'베토벤 vs 비틀즈'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래식 음악과 팝송, 영화음악 등 친숙한 곡들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 8번',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플라 익스프레스', '겨울왕국' OST 등이다. 또 '오블라다 오블라다' 등 비틀즈의 히트곡과 '위아더 챔피언' 등 전설적인 록그룹 퀸의 대표곡,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노래 등을 선사한다.

지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차석으로 광주네오필하모니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고 있는 유건우씨가 맡는다. 전석 1만원. 문의 062-962-440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 문학을 품다' 강연

무등문예창작연구회, 20일 시청

광주와 무등의 정신을 주제로 한 문학 강연이 열린다.

광주시가 후원하고 (사)무등문예창작연구회(이사장 문순태)가 주최하는 제2회 '무등, 문학을 품다' 강연이 20일(오후 2시)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회는 김준태 시인을 초청 '광주와 무등의 문학적 형상화'를 주제로 문학 속에 나타난 광주와 무등의 다양한 모습을 고찰한다.



김준태 시인

강연과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무등산 사랑글을 소재로 공모한 작품 가운데 대상과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또한 전문 시낭송가 고희정 씨가 대상 수상작 고영남 씨의 '무진'을 낭송한다. 이밖에 광주전남 전문음악인으로 구성된 나르브르 앙상블의 공연도 펼쳐진다. 광주와 무등을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9245-719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메밀꽃...'·'족구왕' 독립영화 감독과의 대화

20일 광주극장 안재훈·21일 우문기 감독

상업영화 틀바꾸니 속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독립영화 감독과 관객들이 만나는 시간이 마련됐다.

개봉 후 2만 관객을 동원한 애니메이션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의 안재훈 감독은 20일 오후 2시 40분 광주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현진건·김유정·이효석의 단편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풀어낸 이번 작품은 안감독의 전작 '소중한 날들'과 함께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안 감독은 참여 관객 모두에게 캐리커처를 선물한다.

'족구왕'의 우문기 감독은 다음 날인 21일 오후 3시 광주를 찾는다.

'족구왕'은 토의 점수 하나 없이 전역한 학점 2.1의 대재앙은 복학생 만석이 사랑과 족구를 쟁취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로 최근 3만 관객을 넘어섰다.

그밖에 '옛날 영화를 보러갔다' 시리즈에서는 20일 오후 4시40분 '오즈의 마법사'를 상영한다.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특허이슈머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